

한-MERCOSUR FTA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A Study on the Necessity of Korea-MERCOSUR FTA and Policy Implications

정재화(Jae-Hwa Jeong)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선행연구 검토 | 참고문헌 |
| III. 한-MERCOSUR 경제 관계의 최근 동향 | Abstract |
| IV. 한-MERCOSUR FTA 추진전략 | |

Abstract

MERCOSUR, which is the biggest economic community in the Latin America, has great potential as Korea's export market with 220 million population and 2.8 trillion\$ GDP. In the midst of global economic crises, the importance of MERCOSUR is highlighted with relatively sound economic growth.

The average tariff rate of MERCOSUR is 10.4~12.2% which is almost same as that of Korea(12.2%), but the tariff rates on Korea's main export items such as auto, display, digital camera, mobile phone are as high as 20~30%, which means that Korea-MERCOSUR FTA will result in substantial growth of Korea's export. In pursuing Korea-MERCOSUR FTA, cooperations in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mid-sized aircraft, construction and green energy as well as liberalization of commodity market are very important for Korea.

To realize Korea-MERCOSUR FTA, it is essential to overcome the objections from the manufacturing sectors of MERCOSUR. So it is desirable to aim relatively low in terms of the level of liberalization at the beginning, and expand corporate and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ERCOSUR's manufacturing industries.

Key Words : MERCOSUR, FTA, Tariff

I. 서 론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되어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¹⁾은 베네수엘라가 회원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²⁾ 칠레, 볼리비아, 페루 등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안데스공동체(CAN)³⁾, 이스라엘 등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남미 경제의 중심이자 FTA Hub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MERCOSUR에 대한 수출은 97.3%가 전자, 화학, 기계, 섬유류 등 제조업 제품이고 수입은 86.7%가 농산품, 광물 등 원자재 제품인 전형적인 보완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MERCOSUR와의 FTA 체결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순방 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의에서 양자간 무역 자유화의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이래, 총 4차례⁴⁾의 공동연구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관세·비관세 제도와 양자간 경제관계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2007년 10월 31일 개최된 한-MERCOSUR 정책협의회에서 공동연구 최종 보고서를 공식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한국은 그동안 MERCOSUR와 FTA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용어, 즉 FTA라는 명칭과 TA(Trade Agreement)라는 용어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MERCOSUR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후자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당초 한국은 조기에 한-MERCOSUR TA 공동연구를 종료하기를 희망했으나 2년 이상 지연되었다. 게다가 공동연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아직 개시조차 미정인 상태다.⁵⁾ 이는 MERCOSUR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쇠고기 등 축산물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한국산 공산품의 시장잠식을 우려하는 MERCOSUR 측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MERCOSUR의 실질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 정부가 타대륙 혹은 선진권과의 FTA 보다는 중남미 지역, 개도국간 FTA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한-MERCOSUR FTA는 중장기적인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1) 스페인어 Mercado Comun del Sur(남부공동시장)의 약어이며 포르투갈어로는 MERCOSUL(Mercado Comun do Sul)이라고 한다.

2) 2006년 7월, MERCOSUR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현재 브라질 및 파라과이 의회의 인준을 얻지 못해 정식 발효되지 못한 상태이다.

3) 스페인어 Comunidad Andina 의 약어이며 영어로는 Andean Community(ANCOM)이라고 한다. 현재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2005년 5월, 8월, 2006년 3월, 10월

5) 김원호 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06-16, 2006, p.235.

자원개발 투자, 기업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MERCOSUR간 FTA가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2008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기간 동안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MERCOSUR간 무역협정 공동연구 후속조치 검토에 합의했으며, 현재 양측은 동 공동연구를 기초로 FTA 추진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

한-MERCOSUR FTA 공동연구가 2007년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개시가 지연됨으로써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한-MERCOSUR FTA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MERCOSUR 경제의 안정적 성장, 특히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한국의 교역에서 MERCOSUR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 한국이 칠레와의 FTA에 이어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해외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일본 등의 중남미 자원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한국과 EU와의 FTA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되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상황 하에서 한-MERCOSUR FTA 체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FTA 추진전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동 주제와 관련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는 2007년에 종료된 한-MERCOSUR TA 공동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MERCOSUR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입각하여 양자간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FTA 체결 시 GDP 증가율이 한국은 0.17~2.00%, MERCOSUR측은 0.02~2.7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등 포괄적인 FTA 체결에 따른 파급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은 전자제품, 핸드폰, LCD, 의약품 및 섬유, MERCOSUR측은 쇠고기, 오렌지 주스, 대두 등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⁶⁾ 향후 협상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산업, 기술,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 지역간 경제 파트너십 형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TA 협상이 개시되면 상품분야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 투자와 함께 중소기업협력, 과학기술, 교육, 에너지, 관광,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⁷⁾

김원호 외(2006)는 한-MERCOSUR FTA의 경제적 효과로서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전 철폐하는 경우 한국의 GDP가 0.62%~1.61% 증가하고 MERCOSUR의 GDP는 0.07%~0.3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은 농산물의 50%, MERCOSUR는 자동차 및 관련부품의 50%만 개

6) Korea-MERCOSUR Joint Study Report, 2006, pp. 42-43.

7) Ibid. pp. 43-46.

방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한국의 GDP가 0.22%~0.53% 증가하고 MERCOSUR의 GDP는 0.05%~0.2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⁸⁾ 또 향후 MERCOSUR의 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남남협력 중시형으로서 FTAA나 EU 등 선진국과의 FTA 보다는 개도국과의 FTA에 더 집중하는 시나리오, 둘째는 남북협력 중시형으로서 개도국보다는 FTAA나 EU 등 선진국과의 FTA에 치중하는 시나리오, 셋째는 각개약진형으로서 MERCOSUR가 관세동맹에서 자유무역 단계로 후퇴하거나 전면적으로 붕괴되면서 개별국이 각자 FTA 체결에 나서는 시나리오다. 이중 첫째와 둘째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MERCOSUR의 한국과의 FTA 관심도는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한-MERCOSUR FTA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한-미 FTA 협상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TRQ 확대를 포함한 농축산업 부문 추가개방안과 이에 따른 국내적인 조정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어느 경우든 한-MERCOSUR의 협상은 전면적인 FTA 보다는 축소된 형태의 FTA인 PTA 협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한-MERCOSUR FTA 협상이 더욱 복잡한 형태로 전개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와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브라질, 그리고 가변적인 베네수엘라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여 대MERCOSUR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5)는 중국 및 일본의 MERCOSUR 시장 확대 노력 및 MERCOSUR의 FTA 체결확대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남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과 MERCOSUR간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FTA 체결시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부품, 기계, 휴대폰, 에어컨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정치적인 이유로 남발하는 수입제한조치, 각종 비관세장벽 등이 완화되어 한국 업체들의 대MERCOSUR 시장접근이 용이해지고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양자간 요구사항 파악 및 대MERCOSUR 투자의 양적·질적 확대, 양 지역간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¹⁰⁾

권기수(2007)는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 경제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품질경쟁력 강화 및 한-칠레 FTA 발효 등에 따른 경쟁력 제고, 수출유발 효과가 큰 직접투자 확대와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의 사업 확장 등에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중남미 수출시장 기반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 다변화,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 강구 등과 함께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권기수 외(2008)는 2005년 한국의 미주개발은행(IDB) 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참여 확대, 한·중·일 공동 신탁기금의 운영, 신탁기금과 ODA 연계사업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¹²⁾

8) 김원호 외, *op. cit.* pp. 218-219.

9) *Ibid.* pp. 225-235.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MERCOSUR FTA 체결의 효과분석』, 2005, pp.29-32.

11) 권기수, “대중남미 수출급증 배경 분석과 향후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7-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p.11-15.

심영섭·이두희(2009)는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발표한 시책들이 자원개발 능력의 확충과 사회인프라(SOC) 확충에 집중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이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를 수출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IDB 협조융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소비재 분야에서 내수시장 공략 마케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¹³⁾

본 논문에서는 한-MERCOSUR FTA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계량분석을 시도하기 보다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경제관계가 양 지역간 FTA에 제기하는 시사점과 함께 협상개시의 걸림돌을 살펴 보고 향후 협상개시 및 바람직한 협정 체결을 위해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I. 한-MERCOSUR 경제 관계의 최근 동향

1. MERCOSUR 경제 및 교역현황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MERCOSUR는 1991년 3월, 아순시온 조약(남미공동시장창설조약)을 통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로 출범했다. 그 후 1994년 오우루 뾰레투 의정서(Protocol of Ouro Preto) 체결을 통해 1995년부터 불완전한 형태지만 관세동맹(Customs Union) 단계로 발전해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 적용을 개시했으며 현재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지향하고 있다. MERCOSUR는 출범 이후 역내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칠레,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이 연이어 준회원국(Associate member)¹⁴⁾으로 가입하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가 정회원 가입절차를 밟는 등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자율성과 자존심 회복을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MERCOSUR 확대 및 강화를 최우선 수단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브라질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적 위상이 크게 약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브라질이 MERCOSUR의 운명을 책임지게 됨에 따라 MERCOSUR의 대외정책 측면에서 브라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¹⁵⁾

12) 권기수 외,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연구보고서 08-17, 2008, pp.209-210.

13) 심영섭·이두희, “중남미의 위기극복 시책을 활용한 시장진출 방안”, 산업경제분석 2009년 2월, 산업연구원, 2009, pp.76-80.

14) MERCOSUR 공동관세 의무는 지지 않으나, FTA를 통한 특별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15) 권기수, “최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발전동향과 향후 과제”, 세계경제 2003년 8월호, 2003b, p.88.

그동안 MERCOSUR는 FTA에서 관세동맹 형태로 발전하고 다시 공동시장 단계를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협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였다. 이는 각국이 대외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을 꺼려해 초국가적 제도협력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MERCOSUR 단일통화 도입의 토대 마련을 위해 양국간 환율정책 조정을 통한 공동 환율밴드제도를 채택키로 합의하고 최근에는 MERCOSUR 공동의회 창설 논의도 시작되는 등 제도적인 통합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¹⁶⁾

MERCOSUR 4개국의 GDP 합은 2조 8천억 달러로 한국의 약 3배, 인구는 2억 4천만 명으로 5배, 면적은 1,200만km²로 120배에 달한다. 국별로는 브라질이 MERCOSUR 전체 GDP의 77%, 인구의 79%, 면적의 72%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아르헨티나가 20% 내외,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합쳐서 5% 내외를 차지한다. 2008년 MERCOSUR 경제성장률은 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브라질의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이 세계 15위 수준에 달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역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MERCOSUR 회원국들의 주요 경제지표(2008)

구분	단위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구	만명	23,981	18,998	3,974	342	667
영토	만km ²	1,188	851	278	18	41
GDP	억\$	27,707	21,254	5,714	427	312
1인당 GDP	\$		12,007	14,376	12,300	5,277
경제성장률	%		5.2	6.6	8.5	4.7
물가상승률	%		5.8	22.0	8.5	11.0
외채	억\$	3,871	2,366	1,355	115	35
외환보유액	억\$	2,521	1,974	459	62	26
외국인직접투자	억\$	354,192	280,900	69,100	4,190	2
수출	백만\$	287,497	200,000	73,000	7,596	6,901
수입	백만\$	251,799	176,000	59,900	8,548	7,351
경상수지	백만\$	-22,152	-27,330	6,000	-1,000	178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2008, 브라질 통계청(IBGE),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등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등 MERCOSUR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미의존도 때문에 경제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1

16) Ibid. pp.88-89.

월 IMF에 따르면,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2009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브라질의 경우는 1.8%의 플러스 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중국, 중동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¹⁷⁾ 실제로 2008년 한국의 대MERCOSUR 수출이 전년대비 62.8% 증가한 6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MERCOSUR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내수 침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선진국 시장을 대체할만한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방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강국들이다. 우선 브라질은 철광석, 니오븀, 탄탈, 주석, 흑연, 고령토, 질석, 보크사이트, 활석, 망간, 마그네사이트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최근 3년간 동 분야에서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브라질은 매장량 기준 세계 5위, 생산량 기준 세계 2위의 철광석 부존국가로서 생산량이 3.5억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8.4%를 차지한다.¹⁸⁾ 또한 철강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니오븀의 세계 매장량 420만 톤 중 브라질 내 매장량이 98%인 413만 톤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망간(세계 매장량 및 생산량 2위), 알루미늄(세계 매장량 및 생산량 3위) 등 30여종의 막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¹⁹⁾ 이 밖에 브라질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신규 유전 발견에 힘입어 유망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1979년 10억 배럴에 머물렀던 확인 매장량이 2003년 83억 배럴, 2007년 118억 배럴로 급속히 증가해 세계 15위 매장량을 기록하고 있다.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멕시코에 이어 3위 수준이다. 여기에 2007년 말과 2008년의 유전 발견에 따른 비공식 매장량을 합할 경우, 브라질은 러시아에 이은 세계 8대 석유 매장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의 재정확장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중남미국가들의 경우 자원개발 능력의 확충과 SOC의 확충에 집중되어 있다. 브라질은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에 의해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운송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비롯, 2007-2010년 기간중 인프라 개발에 총 2,366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도 300억 달러의 공공사업 메가플랜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는 수력, 원자력 등 전력 시스템 개발투자 확대, 광업사업 개발, 위성방송 개발, 철도 현대화 및 고속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스템 개발투자 확대, 학교시설 확충, 사회인프라 기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²⁰⁾

MERCOSUR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미국이며 중국이 그 다음이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와의 교역이 가장 많고 유럽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교역액 순위가 6위, 한국은 15위이다. MERCOSUR 주요 수출품목은 철광과 그 정광, 석유 및 역청유 등 광물 자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 대두, 사탕수수당, 가금류 등 농산물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산품으로는 승용차, 항공기, 트랙터 부분품 등이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의약품, 컴퓨터 등 주로 공산품이 많으나 원유 수입도 상당규모 이루어지고 있다.

17) IMF, World Economy Outlook, 2009.

18) 2007년 기준 국별 철광석 생산량은 중국(600백만 톤), 브라질(354백만 톤), 호주(320백만 톤), 인도(160백만 톤), 러시아(110백만 톤), 우크라이나(78백만 톤), 미국(52백만 톤), 남아공(40백만 톤), 캐나다(33백만 톤) 순임

19) 수출입은행, “브라질 광업 현황 및 향후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8년 11월호, 2008e.

20) 심영섭·이두희, op. cit. pp.71-80.

〈표 2〉 MERCOSUR 주요 수출입품목(2007)

(단위: 백만 달러)

HS코드	수출품목		수출액	HS코드	수입품목		수입액
		순위				순위	
TOTAL			212,637	TOTAL			176,761
2601	철광과 그정광	1	11,030	2709	석유,역청유(원유)	1	12,704
2709	석유,역청유(원유)	2	8,924	2710	석유,역청유(원유제외)	2	8,884
1201	대두	3	8,456	8703	승용차	3	6,150
8703	승용차	4	7,365	8708	트랙터및특수용도차량 부분품	4	5,744
2710	석유,역청유(원유제외)	5	6,150	8471	컴퓨터 등 자동차료처리기계	5	2,986
8802	기타항공기 및 우주선 등	6	5,569	3004	의약품	6	2,914
8708	트랙터 및 특수 용도 차량 부분품	7	5,165	8704	석유가스및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7	2,371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자당	8	5,136	8411	라디오,TV용송신기기	8	2,248
0207	가금류의 육,식용 설육	9	4,371	852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9	2,226
8525	라디오,TV용송신기기	10	3,591	8704	화물자동차	10	1,809

자료: WITS 무역통계

2. MERCOSUR의 FTA 추진현황

1995년 관세동맹 출범 후 MERCOSUR는 지금까지 많은 국가와 FTA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FTA를 추진했던 멕시코와 칠레가 40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성사시킨데 반해, MERCOSUR는 대상국이 칠레와 안데스공동체(CAN) 5개국 등 주로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다. 역외국으로는 2007년에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고 남아공 및 인도와는 FTA보다 느슨한 단계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PTA)을 체결했다.²¹⁾

우선 칠레는 MERCOSUR가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1996년 10월에 발효되었다. 다음으로 안데스공동체(CAN)인 볼리비아(1996) 및 페루(2003), 콜롬비아(2004) 등과 잇따라 개별적인 FTA를 체결해오다 2005년 초 MERCOSUR-CAN FTA가 정식 발효되었다. 여기에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등과 합하여 2008년 5월 23일에는 남미국가연합(UNASUR)²²⁾이 공식 출범되었다.²³⁾ 동 연합체는 남미 12개

21) 김원호 외, op. cit. pp.186-186

22) 스페인어 Union de Naciones Suramericanas 의 약어이며 영어로는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USAN) 라고 한다. 회원국은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과 CAN(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5개국, 그리고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등 총 12개국이다.

23) 수출입은행,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 배경 및 향후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8년 6월호, 2008d.

국을 아우르는 최초의 단일지역기구이자, 원유, 광물 등 에너지 및 식량자원이 풍부한 세계 5대 거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 남미 지역에서 남미공동시장과 안데스공동체로 상이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던 양 블록이 자유무역협정을 매개로 통합된 것인데 이는 경제통합 사상 처음으로 블록대 블록간 결합이라는 데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²⁴⁾

콜라 정부는 전임 카르도주 정부와는 달리 선진국과의 경제협력(남-북협력)보다는 개도국과의 경제협력(남-남협력)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FTAA 협상이나 EU와의 FTA는 통상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고 대신 안데스공동체와의 FTA 체결 및 남미국가연합 결성 등을 통해 인근 남미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왔다.²⁵⁾ 이에 따라 1994년부터 미국 등 미주지역 34개국과 함께 2005년을 목표로 세계 최대 경제통합체인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구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농업 보조금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MERCOSUR, 미국 등 주축세력의 첨예한 대립으로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또한 FTAA 등을 추진하는 미국의 중남미에서의 주도권 견제와 전통적 교역 상대국인 EU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1995년 12월부터 MERCOSUR는 EU와도 2005년 타결을 목표로 FTA를 추진해왔으나 역시 현재 협상이 교착상태이다. 이는 EU 측의 농산물 시장 개방(특히 쇠고기 쿼터)과 MERCOSUR측의 투자, 정부조달, 통신, 해운 등 양허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외 이스라엘과의 FTA는 2007년 12월 18일 공식 체결되어 현재 의회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고 ASEAN과는 1996년 8월, 아르헨티나 메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 블록간 FTA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1997년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 여파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그 밖에 인도,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²⁶⁾ 등과 FTA 전단계인 PTA를 체결하였고, GCC²⁷⁾, 한국 등과의 FTA를 검토 중이다.

〈표 3〉 MERCOSUR의 FTA 추진현황

구분	대상국
기체결	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1.11 (자유무역지대 출범) 칠레(1996.10 발효), 볼리비아(1997.5 발효), 멕시코1)(2002.11 발효), 페루(2003.8 발효), 안데스공동체(2005), 이스라엘(2007.12 서명),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2008.5), 인도2)(비준대기중), SACU2)(남아프리카관세동맹, 2004.12 서명)
기본협정 체결3)	이집트(2004.7 서명), 모로코(2004.11 서명), 걸프협력기구(GCC, 2005.5 서명), 파키스탄(2006.7 서명)
협상중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EU
검토중	CARICOM, 러시아, 한국, ASEAN

1) 느슨한 형태의 경제보완협정. 브라질-멕시코간 자동차무역협정 체결 후 MERCOSUR 지역으로 확대됨

2) PTA: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특혜무역협정

자료: www.sice.org 및 무역협회, KOTRA 무역관자료 취합

24) 권기수, “MERCOSUR-안데스공동체 FTA의 주요 내용과 의의”, 세계경제 2004년 8월, 2004, pp.95-110.

25) 김원호 외, op. cit. p.230.

26) South African Customs Union의 약자로 남아공, 보츠나와,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27) Gulf Cooperation Council(걸프협력기구)의 약자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한-MERCOSUR 교역 및 투자동향

최근 한국의 대MERCOSUR 교역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헤알화 평가 절하에 따른 브라질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남미산 원자재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으나 그 후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6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2008년에는 흑자 규모가 13.6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의 대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 내외에서 1.4%까지 높아졌다. 최근의 대중남미 수출급증은 중남미 경제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품질경쟁력 강화 및 한-칠레 FTA 발효 등에 따른 국산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 수출유발효과가 큰 직접투자 확대와 현지 투자 진출 기업들의 사업 확장 등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²⁸⁾ 대MERCOSUR 교역의 약 85%는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가 12%, 나머지를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차지한다.

〈표 4〉 한국의 대MERCOSUR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교역	무역수지
2000	2,345 (31.9)	1,141 (5.7)	3,486 (22.0) <1.0>	1,204
2001	2,023 (-13.7)	1,508 (32.1)	3,532 (1.3) <1.2>	515
2002	1,355 (-33.0)	1,631 (8.1)	2,985 (-15.5) <0.9>	-276
2003	1,370 (1.2)	2,068 (26.8)	3,438 (15.2) <0.9>	-697
2004	2,102 (53.4)	2,636 (27.5)	4,738 (37.8) <1.0>	-535
2005	2,828 (34.6)	2,903 (10.1)	5,731 (21.0) <1.1>	-75
2006	3,517 (24.4)	3,299 (13.6)	6,815 (18.9) <1.1>	218
2007	4,113 (16.9)	3,568 (8.2)	7,681 (12.7) <1.1>	545
2008	6,697 (62.8)	5,341 (49.7)	12,038 (56.7) <1.4>	1,356

주 :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기준

()는 증가율 < >내는 대세계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대MERCOSUR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 등 전자전기제품과 자동차 등의 일부 제조업 품목에 대한 편중도가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인다. 대MERCOSUR 10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부품이 단연 1위로서 전체의 16.7%를 차지한다. 이는 브라질 현지에 투자한 삼성, LG 등 국내기업의 부품 수입수요가 주된 원인이다. 이 밖에 승용차, 경유, 평판디스플레이, 칼라TV, 건설 중장비 등의

28) 권기수, op. cit. pp.5-10.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MERCOSUR 수입은 광산물, 농림수산물 등 주로 1차 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10대 수입품목을 보면, 철광, 동광 등 금속 광물제품, 강반제품 등의 철강제품과 두류, 박류 등의 순이다. 특히 2005년 이전까지는 주로 곡물 위주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진 편이나, 2005년 이후 철광석, 원유, 강반제품 등 자원관련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어 MERCOSUR에 대한 에너지 및 광물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10대 품목 중 철광 제품의 비중이 25.5%로 가장 높다.

〈표 5〉 대MERCOSUR 10대 수출입품목(2008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품목(MTI4)	2008년 (비중)	수입품목 (MTI4)	2008년 (비중)
1	무선통신기기부품 (8128)	1,119 (16.7)	철광 (1120)	1,359 (25.5)
2	승용차 (7411)	1,062 (15.9)	강반제품 (6191)	985 (18.4)
3	경유 (1332)	699 (10.4)	박류 (0135)	517 (9.7)
4	평판디스플레이 (8361)	411 (6.1)	동광 (1130)	475 (8.9)
5	칼라TV (8211)	410 (6.1)	두류 (0113)	323 (6.1)
6	건설중장비 (7251)	268 (4.0)	식물성유지 (0131)	256 (4.8)
7	합성수지 (2140)	265 (4.0)	선철 (6182)	220 (4.1)
8	화물자동차 (7412)	215 (3.2)	천연섬유원료 (0191)	169 (3.2)
9	제트유및등유 (1333)	150 (2.2)	펄프 (2511)	135 (2.5)
10	타이어 (3203)	91 (1.4)	합금철 (6181)	84 (1.6)
	소계	4,691 (70.0)	소계	4,522 (84.7)
	총계	6,697 (100)	총계	5,341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MTI 4단위 및 MERCOSUR CET관세율(2007)참조

한국의 대MERCOSUR 직접투자는 2008년까지 누계기준으로 11.7억 달러를 기록, 전세계 총 투자액의 1.0%로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1999년 MERCOSUR 지역의 거시경제 불안으로 인해 해외투자 역시 크게 위축되었으나, 2005~6년 들어 브라질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별로는 브라질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대MERCOSUR 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

년도	MERCOSUR					중남미 (B)	전 세계(C)	비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소계(A)			A/B	A/C
1968~1995	23,670	57,124	518	1,854	83,166	463,256	13,531,952	18.0	0.6
1996~2000	246,707	75,221	85	0	322,013	2,546,121	22,106,822	12.6	1.5
2001	18,823	3,255	0	0	22,078	121,581	5,272,423	18.2	0.4
2002	3,073	6,655	0	600	10,328	297,731	4,005,462	3.5	0.3
2003	6,979	0	0	856	7,835	613,643	4,755,988	1.3	0.2
2004	19,892	231	0	320	20,443	565,488	6,668,648	3.6	0.3
2005	174,665	1	0	100	174,766	542,427	7,050,437	32.2	2.5
2006	110,203	5,092	0	197	115,492	1,214,392	11,562,956	9.5	1.0
2007	263,943	4,129	0	0	268,072	1,464,195	21,798,986	18.3	1.2
2008	134,359	7,238	87	0	141,684	1,617,221	21,855,488	8.8	0.6
총계	1,002,314	158,946	690	3,927	1,165,877	9,446,055	118,609,162	12.3	1.0
비중	86.0	13.6	0.1	0.4	100.0				

자료: 수출입은행

대MERCOSUR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51.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광업에 대한 투자가 32.9%에 달한다. 브라질 내 광업에 대한 투자 역시 2004년 1,868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1.1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2000년 이전에는 광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아르헨티나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최근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MERCOSUR의 대한국 투자는 2008년까지 누계로 5천 4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4. MERCOSUR의 관세구조

MERCOSUR는 1991년부터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함으로써 역내무역자유화를 진행해 왔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유예제도를 설정해 1999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키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자동차, 설탕 등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MERCOSUR는 역내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1991년 아순시온 조약에서 대외공동관세 도입을 규정하고 1995년 1월 1일부터 0~20% 수준의 공동관세를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대외공동관세의 기본구조는 가공정도 및 부가가치에 따라 경사(escalate)²⁹⁾되는 특징을 가지며 생산단계에 따라 2%씩 높아지는 11단

계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원자재는 0~12%, 농산품은 10~12%, 자본재는 12~16%, 소비재는 18~20%의 관세가 부과된다.³⁰⁾ 하지만 각국의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각 국별 예외품목인 기본예외품목(Basis List of Exceptions, LBE)과 자본재(Capital Goods, CG), 정보통신장비(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Goods, ITTG), 설탕 및 자동차분야, 중남미 국가들과의 특혜적용품목 등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³¹⁾

대외공동관세를 원칙으로 하는 MERCOSUR의 국별 관세수준은 대체로 유사한 편이나, 각 회원국별 예외품목으로 인해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평균 관세율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농산품에 대한 관세는 MERCOSUR 회원국들이 거의 유사한 반면, 공산품의 경우 브라질, 아르헨티나(각각 12.5%, 12.2%)가 우루과이, 파라과이(각각 10.7%, 10.4%)보다 약간 높다.

각 회원국들의 품목별 관세수준을 살펴보면, 농산품 중에서 평균 실행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은 주로 설탕, 음료 및 주류, 담배, 우유 및 유제품 등이다. 또한 공산품 중 평균 실행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의류를 비롯해 사, 직물, 수송기기, 가죽/고무/신발 등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우 자동차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품목별 평균관세가 10% 미만인 품목들은 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광물제품, 기계류(브라질 제외) 등이다.

〈표 7〉 MERCOSUR 각 국의 대외공동관세(2007 평균 실행세율)

품목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AVG	MAX	비중	AVG	MAX	비중	AVG	MAX	비중	AVG	MAX	비중
전 체	12.2	35	100	12.0	35	100	10.6	55	100	10.4	30	100
농산품	10.3	35	4.9	10.2	32	3.1	10.0	55	9.2	10.0	30	6.4
공산품	12.5	35	95.1	12.2	35	96.9	10.7	23	90.8	10.4	28	93.6
어류 및 그 제품	10.0	16	0.4	10.1	16	0.2	10.1	16	0.6	10.1	16	0.0
비금속 광물제품	7.5	20		7.5	20		8.8	21.5		7.3	20	

29) 경사관세제도(Tariff Escalation): 상품의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다. 자동차처럼 제조공정이 많은 상품은 관세율이 높고 원자재에 가까울수록 관세율이 낮아진다.

30) 김원호 외, op. cit. pp. 201-202.

31) 국별 예외품목(LBE)의 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최대 100개 품목, 우루과이 225개, 파라과이는 649개 품목이다. 자본재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2001년 1월 1일까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2006년 1월 1일까지 대외공동관세를 14%로 통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회원국들의 요청으로 2008년으로 연기된 뒤, 다시 2015년으로 제차 미뤄졌다. 또한 정보통신장비(ITTG) 예외품목도 2006년 1월 1일까지 대외공동관세를 16%로 일치시키기로 했으나 역시 2015년까지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2009년 말까지 역외관세 적용 예외품목을 최대 100개로 유지한 뒤, 2010년 12월까지 품목 수를 50개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하였고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경우는 2015년까지 각각 최대 100개씩의 공동관세 적용 예외품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MERCOSUR 회원국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약 85% 정도가 대외공동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외공동관세의 100% 실현은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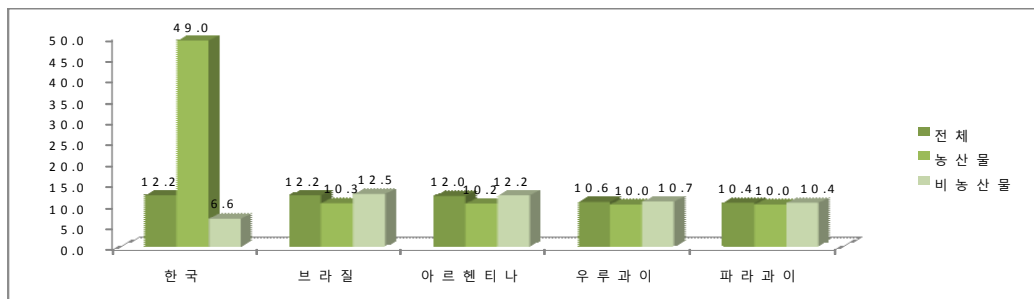
철강 및 금속제품	11.4	18	17.7	11.2	25	12.7	12.9	19.5	9.6	11.1	18	11.0
석유제품	0.2	6	15.3	0.3	6	2.5	0.3	6	23.5	0.3	6	10.4
화학제품	8.3	18	16.4	8.2	18	18.5	7.8	18	16.3	7.8	18	10.3
종이, 목재, 펄프류	10.8	18	1.8	10.9	18	3.5	10.0	18	3.6	10.4	18	2.7
섬유사 직물	16.8	20	2.1	20.8	35	3.1	16.5	20	2.7	16.4	25	2.0
의류	20.0	20	0.4	25.3	35	0.4	20.0	20	1.3	20.5	25	0.9
가죽, 고무, 신발	14.5	35	2.6	14.8	35	2.9	13.9	20	3.9	13.3	25	2.9
기계류	12.8	20	16.0	5.5	20	17.5	3.4	20	8.2	3.3	20	22.4
전자기기류	14.3	20	9.4	12.5	20	12.8	11.2	20	7.5	8.7	22	11.2
수송기기류	18.1	35	8.0	14.1	35	17.8	8.6	23	7.4	8.7	28	12.6
기타 제조품	15.2	20	5.0	14.0	35	4.9	13.6	20	6.1	12.8	25	7.2

자료: WTO World Trade Report 2008

5. 한국과 MERCOSUR간 관세수준 비교

한국과 MERCOSUR의 전체 평균 실행관세율은 각각 12.2%, 10.4%~12.2%로 대체로 서로 유사한 수준(2007년 실행관세율 기준)이다. 하지만 이를 농산물/공산품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데, 먼저 농산물의 경우 한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49.0%로 매우 높은 반면, MERCOSUR 각 회원국들은 10.0~10.3%에 불과하다. 한편 MERCOSUR는 자국 공산품의 취약한 경쟁력을 이유로 공산품에 대한 보호 장벽을 높이고 있어, 공산품 평균 실행관세율 수준은 10.4%~12.5% 정도로 한국(6.6%)의 두 배 수준이다.

[그림 1] 한국과 MERCOSUR의 관세비교('07 평균 MFN실행세율)



자료 : WTO World Trade Report 2008

품목별 관세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상당수 농산물에 초고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수산물, 의류, 섬유사 직물과 가죽/고무/신발류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MERCOSUR의 경우는 의류 및 섬유사 직물, 가죽/고무/신발, 수송기계류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8〉 한국과 MERCOSUR의 품목별 관세율

(단위: %)

품목군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전체	12.2	12.2	12.0	10.6	10.4
농산물	49.0	10.3	10.2	10.0	10.0
비농산물	6.6	12.5	12.2	10.7	10.4
수산물	15.8	10	10.1	10.1	10.1
광물	5.9	7.5	7.5	8.8	7.3
석유류	4.6	0.2	0.3	0.3	0.3
화학제품	5.9	8.3	8.2	7.8	7.8
철강및금속	4.1	11.4	11.2	12.9	11.1
목재및펄프	2.2	10.8	10.9	10.0	10.4
섬유사직물	9.1	16.8	20.8	16.5	16.4
의류	12.6	20	25.3	20.0	20.5
가죽,고무,신발	7.9	14.5	14.8	13.9	13.3
기계류	6.1	12.8	5.5	3.4	3.3
전자기기류	6.2	14.3	12.5	11.2	8.7
수송기계류	5.5	18.1	14.1	8.6	8.7
기타제조업	6.7	15.2	14.0	13.6	12.8

자료: WTO World Trade Report 2008

한국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보면 2008년 수출 1위인 유무선전화기부분품에 대해서는 2~1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동 품목은 대부분 정보통신장비로 분류되어 MERCOSUR 대외 공동관세 적용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과 일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경유에 대해서는 0~6%로 비교적 관세가 높지 않으나 자동차(35%), LCD모니터(18%), ABS수지(14%) 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정보기술협정(ITA) 및 철강무세화협정 미참여국으로서 IT 제품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 9〉 한국의 대브라질 10대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율

순위	HS6	품목명	하위 품목수	'08수출액 (천\$)	관세율 (%)
1	851770	유무선전화기 부분품	6	1,110,280	2/8/12/16
2	271019	경유 및 제트연료유 등	12	849,172	0/4/6
3	870323	승용차 (1500CC초과3000CC이하)	2	493,560	35
4	901380	TV용 액정디바이스	2	397,057	0/18
5	852990	텔레비전 수상기 등의 부분품	7	388,733	0/8/12/16
6	870324	승용차(3000CC초과)	2	284,658	35
7	842952	메커니컬셔블 · 엑스캐베이터와 셔블로더(360도 회전의 상부구조 가진것)	5	168,494	0/14
8	870421	화물자동차(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	156,470	35
9	85401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천연색의 것)	1	76,192	18
10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2	58,528	14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ITS(2007년 실행관세율)

대아르헨티나 최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인데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14%), LCD모니터(18%) 등에도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 대우루과이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평판압연제품 등의 철강제품과 자동차, 건설 중장비 및 무선통신기기 등인데 자동차 수입관세율은 23%에 달한다. 한편, 파라과이에 대한 최대 수출 품목은 경유승용차(배기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로, 2008년 2,563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표 10〉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10대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율

순위	HS6	품목명	하위 품목수	'08수출액 (천\$)	'07관세율 (%)
1	870332	디젤 및 세미디젤승용차 (1,500CC초과2,500CC이하)	2	71,160	35
2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1	46,866	14
3	870323	가솔린승용차(1,500CC초과3,000CC이하)	2	45,075	35
4	870421	화물자동차(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	33,569	35
5	852872	기타 영상디스플레이(천연색의 것)	1	21,582	0/20

6	870321	승용차(1000CC이하)	1	17,969	35
7	901380	TV용 액정디바이스	2	13,213	0/18
8	852990	레이더기기용 부분품	7	12,207	0/8/12/16
9	85401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천연색의 것)	1	11,391	18
10	870210	10이상 수송용 자동차	1	10,168	3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ITS(2007년 실행관세율)

한국의 대MERCOSUR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한국의 관세수준을 살펴보면 2008년 대MERCOSUR 수입액 10만 달러 이상인 품목중 10%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은 대두류, 옥수수 등 곡실류와 닭고기, 치즈류, 과일주스, 포도주 등의 음료 및 담배류 등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발 등 공산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종자, 옥수수,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등 양허세율이 100% 이상 매우 높은 품목의 경우, 사실상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대부분 무세에 가깝게 수입되고 있다.

관세율 5% 초과~10% 이하를 적용받는 수입품목으로는 식품용 대두유 등 식용유지와 인스턴트커피 등 음료 및 기타 조제식품, 일부 기타 어류와 압축기, 유압식 변압기, 차량용 부분품 등의 기계류 등이 있다. 이 밖에 목재류, 폴리아미드수지 등 플라스틱 제품과 아크릴로니트릴 등 기타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존재한다. 이 밖에 5% 이하의 저관세 품목에는 주로 박류 등의 곡실류와 기타합금철, 니켈괴 등 금속 광물류, 커피류, 소가죽 등 가죽류, 목재류 등이 다수 분포한다. 무관세 적용 품목은 주로 적철광, 동광과 정광 등 금속 광물류와 슬랩, 빌레트, 제강용선철, 기타 강반제품 등 철강제품 등으로 對MERCOSUR 주요 수입품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펄프 등 목재류와 순모 울톱, 면 등의 섬유제품, 의약품 및 의료용 기기 등도 무관세로 일부 수입되고 있다.

<표 11> 한국의 10% 초과 고관세 적용 품목

HS코드	품목명	수입금액 (천불)	'07 관세율 (%)
1201001010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종자	317,545	487*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 (주맥제거)	53,750	20
0207141010	다리(절단육, 냉동담)	35,374	20
2009110000	냉동한 것 (과실 주스)	32,005	54

1005909000	기타 옥수수 (종자용 .사료용 제외)	30,168	328*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	20,796	36
0207141030	날개(절단육,냉동닭)	15,779	20
1201009090	기타 종자, 과실류(식용,탈지대두박용을 제외한 것)	5,591	487*
1104230000	가공한 옥수수(껍질제거 ,진주상 ,얇은조각 형태 또는 거칠게 빻은 것)	3,598	167*
0406909000	기타 치즈	3,552	36
2401202000	버어리종 잎담배 (주맥제거)	3,420	20
6403999000	기타 신발 (바닥이 고무 .플라스틱 .가죽제 ,갑피는 가죽제)	3,336	13
1005901000	사료용 옥수수	3,149	328*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에틸알코올	3,024	270*
2104101000	수우프,부로드,수우프.부로드제조용 조제품 (육류의것)	2,496	18
2009690000	포도주스 중에서 브리스 값이30을 초과하는 것	2,452	45
2204211000	붉은포도주(2L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179	15
2207109090	기타 (주류제조용 발효주정을 제외한것)	2,177	30
2008199000	조제, 저장처리한 견과류, 종자류(혼합물포함)(밤, 코코넛 제외)	1,792	45
2401301000	담배잎의 주맥	1,020	2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수입액 및 관세는 2008년 수치

* 표시는 탄력관세 적용 가능품목.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HS 2207109010)의 탄력세율은 30%, 여타 품목의 탄력세율 적용 시 5% 이하의 낮은 세율로 수입 가능

IV. 한-MERCOSUR FTA 추진전략

1. 한-MERCOSUR 경제관계의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과 MERCOSUR간 경제관계의 최근 동향을 통해 한-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의 MERCOSUR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국간 교역은 최근 들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MERCOSUR 지역은 그동안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와 함께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도 제한적으로만 받음으로써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양 지역간 산업경쟁력과 관세수준의 차이로 인해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주로 자동차, 전자, 기계류 등의 수출이, MERCOSUR는 주로 광산물, 식품 등 일차산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의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이 있는데 브라질의 연간 승용차 및 경량용차 판매량은 282만 대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시장이다. 게다가 인구 1,000명 당 자동차보유대수는 135대에 그쳐 향후 브라질 자동차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FTA가 체결되어 최대 35%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중국,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경쟁업체들에 앞서 브라질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역시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중소형, SUV 차량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³²⁾

IT 분야 역시 유망한데 최근 브라질 이동통신업체들이 3세대 기술을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가능지역 확대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3G 기술의 확대 보급으로 게임, GPS 등 콘텐츠 수요도 함께 급증할 것으로 보여 동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대MERCOSUR 휴대폰 수출 시 최대 12~16%의 관세를 부과 받고 있어서 FTA 체결 시 한국 업체가 일본 등 주요 경쟁업체보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및 가정용 기계류도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데 브라질 내 건설 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 장비 제품과,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선박추진용 엔진 등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목 중 고관세 적용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세탁기, 가정용 냉장고 등에 대한 최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수입 관세율이 20%에 달해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 및 부품의 경우, 영상 모니터 및 TV 부품(관세 최대 16%)과 칼라TV(18%)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내 관세철폐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브라질의 경우, 최근 일반 TV제품 뿐 아니라 LCD TV, 플라즈마 TV 등 고급 TV 제품에 대한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동 제품 및 관련 부품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모색도 가능할 것이다.³³⁾

반면,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우선 농축산물을 들 수 있다. 포도 주스, 포도주, 황색종 잎담배 등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품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품 생산 및 수출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 브라질 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브라질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현재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절차가 완료되면 FTA와 별개로 수입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도 과거 잇따른 구제역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어 왔지만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안전국가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쇠고기 수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5년 6월, 수입 재개된 닭고기의 경우 현재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철폐시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콩, 옥수수 등 곡물의 경우 국내 시장이 대부분 개방되

32) 수출입은행, “중남미 자동차시장 현황 및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8년 5월호, 2008c.

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자료, www.kotra.or.kr

어 있어 추가적인 수입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 중에서는 철광, 강반제품 등 광물 및 철강 품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에 대한 국내 관세율이 높지 않아 수입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처럼 양국 산업의 보완성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FTA 체결은 경제효율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한편으로는 취약산업, 즉 한국의 농업계와 MERCOSUR의 제조업계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농업계는 그동안 칠레,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과의 FTA에 강하게 반발해 왔기 때문에 MERCOSUR와의 FTA에도 역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농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FTA 추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양 지역간 투자교류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들어 브라질을 중심으로 광업투자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일본 등이 MERCOSUR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4년 5월 룰라 대통령의 방중시 브라질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부통령급 고위조정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자원개발 및 인프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확대에 합의했다.³⁴⁾ 이러한 점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MERCOSUR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근 광물개발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과 MERCOSUR 간에는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 기업의 투자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외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FTA를 통한 투자협정의 체결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MERCOSUR의 대외통상정책기조가 한-MERCOSUR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MERCOSUR는 역내시장 통합을 거의 마무리 지음과 동시에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도 나서고 있으나 EU와의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이고 아세안과의 FTA 논의도 잠정 중단되는 등 최근 FTA 추진에 다소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MERCOSUR의 대외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브라질이 그동안의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에서 개도국간의 경제협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고 브라질 내 산업계의 FTA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도 MERCOSUR와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한-MERCOSUR FTA 추진전략

앞에서 한국과 MERCOSUR간 경제관계 고찰을 통해 양 지역간 FTA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들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걸림돌을 극복하고 한-MERCOSUR FTA가 체결될 수 있기 위한 향후 추진전략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34)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중남미 자원외교 및 IDB 활용전략” - 2005년도 중남미지역 공관장 워크숍 자료, 세계경제 2005년 3월, 2005, p.11.

첫째, 양 지역의 피해예상 부문, 즉 한국의 농업·축산업계와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제조업계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경우 가장 민감한 분야가 농업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MERCOSUR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는 콩, 옥수수, 커피, 잎담배, 과일주스, 면, 닭고기, 치즈 등이 있다. 이중 콩, 옥수수 등 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류의 경우는 현재 이미 0%에 가까운 탄력세율로 국내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방부담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커피, 면, 치즈 등 국내 공급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품목의 경우에도 역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닭고기, 과일주스, 잎담배, 그리고 현재는 수입규모가 크지 않지만 향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가장 민감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민감품목에 대한 적절한 개방유예조치가 수반된다면 국내적인 반발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닭고기, 쇠고기 등의 경우 기 타결된 한-미 FTA나 타결이 임박한 한-EU FTA를 통해 국내시장 개방이 상당 수준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한-MERCOSUR FTA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 개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ERCOSUR 제조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일본이 아세안, 인도 등 개도국과 FTA를 추진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적극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기술협력, 투자확대 등 시장접근 이외의 분야에서 상대국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산업간 대화를 통해 FTA 체결이 상대국 제조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앞선 IT 기술을 바탕으로 중남미국가들의 digital divide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차별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중남미 IT 정책부서 및 IT 산업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⁵⁾ 아울러 한-MERCOSUR를 단순히 경제관계 측면에서만 아니라 브라질 등 MERCOSUR 회원국들의 대아시아 외교관계 확대의 방편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협상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자유화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과정에서 FTA 보다는 그 수준이 다소 낮은 TA(Trade Agreement)를 염두에 두고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이 수준을 넘어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양국 내에 강력한 반발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사전에 전제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자유화 수준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FTA 체결의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추후 한국의 경쟁국이 이 지역과 보다 높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하면 시장선점 효과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선은 TA라는 이름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협상 과정을 통해 한국의 관심 품목을 최대한 자유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한-멕시코 FTA의 사례에서 보듯이³⁶⁾ 협상 중간에 자유화 목표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일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MERCOSUR FTA는 상품양허 뿐만 아니라 협력분야도 중요한 아젠다로 다루어져야 한다.

35) 김원호,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 가입과 경제협력정책상의 의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5-03, 2005.

36) 한국과 멕시코는 2005년 9월, FTA보다 다소 자유화 수준이 낮은 전략적경제보완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imentation Agreement, SECA) 추진에 합의하고 협상을 시작했으나 2006년 6월 제3차 협상 후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2007년 12월에 한-멕시코 FTA 체결을 목표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체결되는 FTA에서는 협력 분야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WTO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상품시장접근 위주에서 개도국의 개발지원 문제가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한-MERCOSUR 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개방 중심의 FTA에 반발하는 브라질 등 MERCOSUR 회원국 산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서도 MERCOSUR 상품시장에 대한 접근 못지 않게 자원개발 협력 등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양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는 무엇보다 자원협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농업분야의 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MERCOSUR 회원국들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농업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³⁷⁾ 1960년대 농업이민을 계기로 남미에 한국인이 정착하였으나 남미와 한국간 농업협력은 그간 사실상 전무했다. 산림분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은 아직까지 부재하며 민간차원에서는 일부 해외조림업체가 진출한 것이 전부다. 수산분야는 타 분야보다 이른 1985년부터 아르헨티나 수역을 시작으로 페루, 칠레 등과 민간차원의 입어가 이루어졌으나 정부간 협력단계로의 발전은 최근에서의 일이다.³⁸⁾ 따라서 한국은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농산물 생산에 경쟁력 있는 MERCOSUR와의 선진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신소재 식물자원 개발과 신식품종 육성 연구 등 한국 농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 지역에 해외 협력연구센터 상호 설치 등을 통한 양국 농업과학 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브라질 내 사탕수수 등을 이용한 고효율 에탄올 생산 관련 첨단기술 진수를 통해 친환경 대체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 가능 분야는 매우 많다.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기간 동안 현지에서 IT 로드쇼를 개최해 한국의 우수한 와이브로, 인터넷 TV(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기술을 소개했고 플랜트 수주촉진을 위한 지원센터도 개소했다. 또 브라질과 산업 및 자원협력위원회도 설치했는데 특히 무선 인터넷 등에 대한 현지 공무원과 취재진의 관심이 매우 높아 향후 이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오 에탄올 사용이 가능한 브라질의 친환경 자동차인 Flex형 자동차 개발 기술 등 브라질의 세계적인 바이오연료 기술에 한국의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³⁹⁾ 그 외에 브라질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중형항공기, 인공위성,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이전, 공동개발과 더불어, 학술, 사회간접자본,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관계 협력 확대 도모 가능할 전망이다.

넷째, 한국의 관심사인 자원 확보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FTA의 목적이 무역자유화에 있는 만큼, 특정 품목에 대한 독점적인 수입권의 확보와 같은 조항을 협정문 내

37) 콩의 경우 MERCOSUR 생산량이 1억 840만 톤에 달해 전 세계 생산량의 50.2%를 차지한다. 사탕수수(34.5%), 커피(28.2%), 쇠고기(18.6%), 담배(17.5%), 닭고기(13.3%) 등은 세계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38)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op. cit.* pp.17-18.

39) *Ibid.* p.12.

에 집어넣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원협력을 협력 Chapter에서 선언적으로 언급하는 방법과 함께 상품양허에서 수출규제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08년 12월 발효된 일-브루나이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에너지에 관한 장을 상품, 서비스 Chapter와 분리해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두어 안정적 에너지 확보 협력의 근거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이다.⁴⁰⁾ 또한 중국의 경우도 2008년 11월 타결된 페루와의 FTA에서 협력 Chapter 내에 광산업에 대한 상호간 공동협력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Mining and Industrial Cooperation Chapter에서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채광산업 및 관련 기술 이전, 기술개발을 위한 양국간 민관 조인트 벤처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까지 발효된 FTA 중에서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FTA의 두 경우만 협력 Chapter에서 에너지 협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MERCOSUR와 협상 시에는, 에너지 및 이에 관한 조항을 별도의 Chapter로 두어 안정적 에너지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수출입 제한, 에너지 규제조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에너지 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⁴¹⁾

V. 결 론

인구 2억 2천만명, 경제규모 2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인 MERCOSUR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특히 2008년 5월, MERCOSUR, CAN 등 남미 12개국들로 구성된 남미 국가연합(UNASUR)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남미지역 경제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MERCOSUR는 향후 한국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커질 전망이다.

MERCOSUR의 전체 평균 실행관세율은 10.4~12.2%로 한국(12.2%)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MERCOSUR 역외 관세율은 높은 편이다. 특히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자동차, 디스플레이,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 대해 20~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브라질 등 MERCOSUR 시장 내에서 값싼 중국산 제품과 세계적 브랜드 파워를 지닌 일본산 제품 등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양 지역간 FTA 체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 등 MERCOSUR 회원국들은 풍부한 자원 보유국으로서 이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FTA 체결 필요성을 높여주는 점이다. 한-MERCOSUR FTA 체결을 통해 MERCOSUR 내 자원 개발 사업에 한국

40) 고성은, “일-브루나이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07. 동 협정문 제 7장(에너지)은 ① 에너지 상품 수출입 금지 시 상대국에 대한 통보, ② 에너지 규제조치의 기존 계약관계에 대한 침해 고지, ③ 환경적 고려, ④ 에너지 협력 도모 및 ⑤ 에너지 소위원회(Energy Sub-Committee)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일본이 필리핀, 태국 등과 체결한 EPA 등에서도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협력 Chapter와 이행협정(Implementing Agreement) 등에 규정해 양국 간 협력을 촉진·도모코자 했다.

41) Ibid.

정부 및 기업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원 공급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철광석,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전력,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의 플랜트 산업 경쟁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농업, 항공,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MERCOSUR FTA 체결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한국 입장에서는 농업 분야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MERCOSUR로서는 제조업계의 반발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소 낮은 단계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 진행 과정에서 시장개방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해 나가는 탄력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자국 제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는 브라질 등의 소극적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IT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기업간·산업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한-MERCOSUR를 단순히 경제관계 측면에서만 아니라 브라질 등 MERCOSUR 회원국들의 대아시아 외교관계 확대의 방편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한-중남미 협회, 한-브라질, 한-아르헨티나 협회 등 다양한 민간 경제협력 채널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가칭 「한-중남미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양 지역간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성은, “일-브루나이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07.
- 권기수, “MERCOSUR-EU간 통합협상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세계경제 2003년 3월, pp.24-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a.
- _____, “최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발전동향과 향후 과제”, 세계경제 2003년 8월호 pp.87-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b.
- _____, “MERCOSUR-안데스공동체 FTA의 주요 내용과 의의”, 세계경제 2004년 8월 pp.95-1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_____, “중남미 자원국유화의 배경과 전망”, KIEP 세계경제 2006년 6월호 pp.63-7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_____, “대중남미 수출급증 배경 분석과 향후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7-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권기수 외,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권기수 외,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연구보고서 08-17, 2008.
- 김원호, 「MERCOSUR 회원국의 경제통합정책과 추진방향」, 정책자료 96-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_____, “아시아-중남미 경제관계의 발전과 지역간 협력과제”, KIEP 세계경제 1998년 11월호 pp.73-8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_____,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 가입과 경제협력정책상의 의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5-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김원호 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06-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중남미협회,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2005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MERCOSUR FTA 체결의 효과분석」, 2005.
- _____, 「2008년 대한 수입규제동향 및 2009년 전망」, 2008.
- _____, 「2009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자료」, 2009.
- 수출입은행, 「남미 자원부국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8a.
- _____, “브라질 국별 리포트”, 수은해외경제 2008년 1월호, 2008b.
- _____, “중남미 자동차시장 현황 및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8년 5월호, 2008c.
- _____,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 배경 및 향후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8년 6월호, 2008d.
- _____, “브라질 광업 현황 및 향후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8년 11월호, 2008e.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심영섭·이두희, “중남미의 위기극복 시책을 활용한 시장진출 방안”, 산업경제분석 2009년 2월 pp.71-80, 산업연구원, 2009.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8」, 2008.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중남미 자원외교 및 IDB 활용전략” - 2005년도 중남미지역 공관장 워크숍 자료, 세계경제 2005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윤현덕,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지역연구회시리즈 0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정철 외, “한-페루 FTA 협상개시 의의 및 대응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8-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Korea-MERCOSUR Joint Study Report, 200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자료, www.kotra.or.kr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브라질 광업생산국(DNPM), www.dnpm.gov.br

브라질 통계청(IBGE), www.ibge.gov.br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www.indec.gov.ar

CIA, The World Fact Book 2008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 www.sice.org

IMF, 「World Economy Outlook」, 2009.

WITS 무역통계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8.

WTO, World Trade Report 2008.